

전북지역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도교육청, 25일 '학부모 한마당' 개최... 학부모교육·학부모회 활동성과 공유

전북지역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부모교육과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학부모 한마당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학부모 한마당은 올해 도교육청

이 지원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에 참여한 도내 250개교 학부모 임원과 참여를 희망한 초·중·고·특수 학교 학부모 3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핵심은 모둠별로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활동성과를 나누고, 2020년도 학부모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동아리 운영사

례 발표 ▲2019년 학교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활동성과 공유 ▲2020년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안내 ▲학부모교육 활동 홍보영상 상영 ▲수업나눔 한마당과 연계한 지역별 학부모 의견 나눔 마당 등이다.

특히, 학부모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는 학교참여 활동, 학부모동아리, 학부모교육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이뤄

질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로 모듬을 구성해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학부모교육과 학교참여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담당 장학사는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교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학부모 한마당을 통해 제시된 학부모들의 의견은 내년도 학부모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지난 20일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방구석 에디스 경진대회'가 열렸다.

학생들의 특특 튀는 창업 아이디어 '풍성'

전북대,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는 '자전거에 센서를 부착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아동보호 자전거'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알람이 달린 약통', '고양이 변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까지 학생들의 특색 튀는 창업 아이디어들이 공개됐다.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센터장 배준수)와 LINC+사업단, 학내 청년벤처클럽 '#해시태그'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청년벤처클럽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였다.

'방구석 에디스 경진대회'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대회는 평소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12개 팀 30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아동보호를 위한 자전거 안전장치 시스템'을 발표한 'USB 팀'(박보배 외 4명)이 받았다. 최우수상은 '필라(필+알람): 노년층을 위한 투약 알람 약통' 아이디어를 낸 Dr. 에디스 팀(김태연 외 4명)이, 감자농장 팀 외 3팀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장은 "이번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같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우수 교원 선정 '동행상' 시상식 가져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해 연구와 수업, 산학협력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교수와 조교를 선정, 포상했다고 전했다.

김동원 총장은 20일 대학 본부 4층 총장실에서 우수 교수 및 조교 26명에 대한 '동행상' 시상식을 갖고, 연구, 수업 등 성과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수업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수에게 주는 대상을 비롯해 연구, 수업, 산학협력, 저술, 취업지도, 봉사, 학사지도 등 8개 분야로 나눠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공무원 표창 지침 개정을 통해 젊은 교수들의 연구력 향상과 연구의욕 등을 고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동일분야에서 수상한 교수들은 선별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을 구분해 포상하는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대상은 건축공학과 유기표 교수가 수상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BIN융합공학과 김남훈 교수, 경제학부(경제학) 정호진 교수 등 9명, 수업 분야 물리학과 이홍석 교수, 심리학과 서정원 교수 등 4명, 산학협력 분야 BIN융합공학과 김학용 교수 등 4명, 저술 분야 체육교육과 김대진 교수, 취업지도 분야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김환철 교수, 문헌정보학과 김수정 교수 등 4명, 봉사 분야 수학과 서경식 교수, 행정학과 주상현 교수, 학사지도 분야 동물생명공학과 이세나 조교가 상을 받았다.

김동원 총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의 밤과 노력 덕분에 대학 경쟁력이 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해 우리대학이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했다.

농생명 융합 신 플랫폼 구축 '총력'

전북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 포럼서 연구성과·사례발표

전북대학교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연구성과와 산업화 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전북대 이학교 교수는 이날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친환경 농축산 생태계를 조성한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과 이를 활용해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돈육 브랜드 두지포크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유용 미생물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축산 4대 문제(냄새, 질병, 생산성 감소, 분뇨 처리)를 해소하는 지역혁신의 시

범사례다.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및 냄새 저감 효과로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고 축산분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및 지속가능한 예코 축산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대 연구진은 '예코 프로바이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4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은 (사)한국마이크로바이옴협회(대표 강기갑 전국회의원)와 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국회포럼이 주최하고 운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주관했다.

/장은성 기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포럼에 있는 미생물들의 총체적인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할 바이오 의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학교 교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대표적인 사례 모델로서 두지포크에 적용된 예코 프로바이옴 솔루션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북대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농생명 융합 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한식조리학교, 부각 창업육성 사업 수료식 가져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에서 주관한 '2019 남원 전통식품산업(부각) 창업 육성 사업'이 지난 19일 8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사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수료식이 열렸다.

2019 남원 전통식품산업(부각) 창업 육성 사업은 관내 부각 관련 창업수요에 따른 예비창업자 창업특화 교육으로 창업이론, 창업실무, 창업특화기

술, 멘토링 학습 및 실습등의 과정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으며, 등록 인원 12명중 12명 모두가 수료했고, 이중 9명이 창업에 성공해 목표 대비 128% 성과를 거뒀다.

수료식에 함께한 김동규 남원부시장장은 환영사를 통해 수료생들의 축하와 감사를 전하면서 전통식품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할

/장은성 기자

평화지향 통일역량 강화한다

도교육청, 한-베 학생 평화교육 교류 추진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한국-베트남 학생간 평화교육 교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2~26일까지 베트남 다락 부은미투웃 중학생 20명과 교사 3명 등 23명을 초청해 도내 중학생 20명과 함께 전북 일원에서 '한국-베트남 학생 평화교육 교류'를 통해 평화교육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평화교육교류는 평화공존 세계관과 평화지향 통일역량 및 교육교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3D, 코딩수업,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수학체험을 진행하고 경기전, 전주김치문화관, 전주소리문화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전북의 다양한 교육과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학생들이 만나 평화감수성을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베트남 평화교육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다락성은 2018년 2월 평화교육교류 상호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도내 고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2명 등 총 22명이 베트남 다락을 방문해 평화교육 교류 활동을 현장에서 진행한 바 있다.

/장은성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12.15.

습관적인 당신의 불법소각 소중한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소각할때 생기는 크고 작은 불씨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곳까지 날아가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서부지방산림청

허가없이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며 큰 산불로 번져 끔찍한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